

DMZ 자전거투어… 몸만 와서 즐기세요

새롬랜드 자전거대여소 설치

연천군 새롬랜드에서 DMZ 자전거 투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17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연천군 임진물 새롬랜드에 'DMZ 자전거투어 대여소'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그동안 DMZ 자전거 투어는 파주 임진각에서만 즐길 수 있었다.

방문객들은 자전거를 대여해 임진 물 새롬랜드에서 출발, 임진강변을 따라 허브릴리지 일원 북삼교를 지난 후, 군남홍수조절지를 반환점으로 되 돌아오는 15km 코스를 달릴 수 있다.

이 코스는 임진강변 위 둑길을 따라 달리며 임진강변의 자연생태 등 수려한 경관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스 인근의 주요명소로 우선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천혜의 절경인 주상 절리가 높이 40m, 길이 15km로 펼쳐져 있으며, 또, 숭의전, 허브릴리지, 경순왕릉, 두루미 테마파크 공원 등 우수한 역사·자연·문화 명소들도 둘

러 볼 수 있다.

대여소는 올해 11월까지 상시 운영 된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시간당 3천 원, 1 일 1만 원의 대여료를 내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운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연천지역에 DMZ 자전거투어 운영을 통해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보강 사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DMZ 자전거 투어를 알리기 위해 'DMZ 자전거투어 특별행사(평화누리길 자전거투어)'를 오는 5월 14일 임진물새롬랜드에서 개최한다.

참가 모집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행사 공식 홈페이지 (www.walkyourdmz.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300명까지 선착순 접수다.

조윤성기자

이제 연천서도 DMZ 자전거 투어

도, 평화누리길 방문객 요청… 임진물 새롬랜드에 '대여소'
임진강변 따라 총 15km코스 오는 11월까지 상시 운영키로

경기도는 연천군 임진물 새롬랜드에 'DMZ 자전거투어 대여소'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임진강변을 따라 하브밸리 지 일원 북삼교를 지난 후 군남홍수조절지를 반환점으로 되돌아오는 15km 코스를 달릴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한탄·임진강 일대가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며 연천평화누리길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났다"며 "파주 임진각뿐만 아니라 이곳에

서도 DMZ 자전거 투어를 하고 싶다는 방문객들의 요청에 따라 대여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여소는 올해 11월까지 상시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간당 3천 원, 하루 1만 원의 대여료를 내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는 'DMZ 자전거 투어 특별행사(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를 다음 달 14일 임진물새롬랜드에서 개최한다. 참가 모집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이며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3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단, 장비대여료 3천 원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운영집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연천지역에 DMZ 자전거투어 운영을 통해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지속적인 보강사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